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295

2017년 8월
교육학석사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광주지역 화자의 영어발화 시 모국어의 억양이 영어억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김 희 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주지역 화자의 영어발화 시 모국어의 억양이 영어억양에 미치는 영향

2017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김 희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주지역 화자의 영어발화 시 모국어의 억양이 영어억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희 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김 희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희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이남근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김경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강희조 교수 인

2017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제2절. 연구의 내용 ·····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제1절. 이론적 배경 ····· 13
1. 영어의 억양 ····· 13
2. 한국어 억양 ····· 15
제2절. 선행 연구 ····· 17
1. 광주방언과 서울말의 억양 ····· 21
가. 광주방언 억양의 특징 ····· 21
나. 서울말 억양의 특징. ····· 21

제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1절. 연구 대상자 선정 ····· 22
제2절. 연구 자료 및 도구 ····· 24
제3절. 연구 절차 ····· 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결과 및 논의 ····· 29
1. 한국어 ····· 20
가. 한국어 평서문 문두 강세 구 ····· 30
나. 한국어 평서문 어말 강세 구 ····· 35
다. 한국어 의문문 어말 강세 구 ····· 41
2. 영어 ····· 43
가. 영어 평서문 강세 음절 주변 ····· 43
나. 영어 yes-no의문문 강세 음절 주변 ····· 47
다. 영어 의문사의문문 강세 음절 주변 ····· 50
제5장. 연구의 한계점 및 결론
제1절. 결론 ····· 5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 52
참고문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래프1> 광주방언과 서울말 화자의 한국어 문장 문두 강세구내 억양
<그림1-1> 광주지역 화자 PSK,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문두
<그림1-2> 서울지역 화자 HWJ,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문두
<그래프2>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평서문 어말 억양
<그림2-1> 광주지역 화자 PSK,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어말
<그림2-2> 서울지역 화자 HWJ,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어말
<그림2-3> 광주지역 화자 PSK, 한국어 평서문 *문장(04)* 전체 발화
<그림2-4> 서울지역 화자 HWJ, 한국어 평서문 *문장(04)* 전체 발화
<그래프3>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어말 억양
<그래프4> 영어 평서문 문장 강세음절 주변 억양
<그림4-1> 광주지역 화자 PSK, 영어 평서문 *문장(15)* 강세구
<그림4-2> 서울말 화자 HKS, 영어 평서문 *문장(15)* 강세구
<그래프5> 영어 yes-no의문문 문장 강세음절 주변 억양
<그림5-1> 광주지역 화자 PSK, 영어 yes-no의문문 *문장(03)*
<그림5-2> 서울지역 화자 HKS, 영어 yes-no의문문 *문장(03)*
<그래프6>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영어 의문사의문문 강세음절 주변 억양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광주지역 화자의 영어발화 시 모국어의 억양이 영어억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1 on the English intonation by Gwangju Korean speakers.

Kim-Heejoo
Advisor : Prof. Hijo-Kang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whether the Korean speakers in Gwangju English with the intonation that is acquired from their mother language dialect produce.

For the purpose, a produc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which recordings were done by three Gwangju and three Seoul speakers in their 20's who were born and grew up at each region. Two groups of speakers were asked to read the material composed twenty nine different Korean and English sentences and three times. 23 English sentences recording material was commonly used for the two groups, but six Korean sentences were different dependency on the groups, to represent the traits of the two dialect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 the case of Korean sentences, F0(fundamental frequency) was measured all syllables in every sentence and examined the intonation of the initial and final. On the other hand, F0 was measures only extracted from the particular accentual phrases positions that were expected to show the intonation could be rise or fall in the English sentences. All the English sentence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entence; declarative, interrogative or imperative sentences and from this classification was considered in the analysi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nly followed at the end of the Korean declarative sentences, around the accentual syllables in the English yes-no interrogative sentences, and around the accentual syllables in the English wh-interrogative sentences. As a result,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intonation of English sentences. The reason is supposed to be have learned English since they were much younger that the ages of the speakers were produced by two dialect speakers relatively low and they have learned English since they were much young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교육은 과거의 단순 암기 및 이해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또 다른 학습자들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표현 위주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아 나아가고 있다. 표현 위주 영어 교육으로의 전환 원인으로는 영어를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언어의 실용적인 면의 강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해외여행의 대중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의 도래 등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 영어의 실질적인 사용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기간의 영어 학습시기와 영어 학습 중요성의 강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의 경우 다년간 꾸준히 영어를 학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김진화(2007)는 그동안 만연했던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의 결과이자 한계점으로 보았고,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과 같은 실용적인 교수법의 사용과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인 억양(intonation)은 화자가 하고자하는 말의 의도나 목적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억양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이준비(1996)는 의사전달과 이해에 있어서 억양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억양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사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희산(1998) 또한 분절음의 분명한 사용보다 운율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억양의 정확한 사용이 비교적 효과적인 의사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Spicher(1992)는 외국인의 영어 발화 시 나타나는 말투 정도와 원어민의 태도 실험을 통해 억양의 역할과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해당 실험에서 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민과 유사한 억양 패턴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발화가 그렇지 않은 화자에 비해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를 통해 억양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이처럼 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억양은 음조(tone)와 강세(stress)의 미세한 변화에도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상 음절언어(syllable-timed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에서보다 강세 언어(stress-timed language)인 영어에서 비교적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강세 언어인 영어의 경우 간단한 단어의 발화에서 조차 모음의 강세와 억양에 따라 문법적인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 1) record : 명사 ['rekərd], 동사 [rɪ'kɔːrd]
2) project : 명사 ['prɑːdʒekt], 동사 [prə'dʒekt]
3) address : 명사 ['ædres], 동사 [ə'dres]

반면 한국어처럼 음절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각 모음에 큰 강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음절 언어에서는 억양의 사용이 강세 언어인 영어에서만큼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이처럼 음절 언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강세 언어인 영어로의 발화에서 억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음절 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한국어 화자의 왜곡된 억양 사용으로 하고자하는 말의 의도나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한국어에서의 억양은 서울말 화자들이 사용하는 표준어 외에도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팔도 혹은 그 이상의 각 지역 방언에 따라 고유의 억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발화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 화자들이 영어를 사용하여 발화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말하는 사람의 지역 억양이 녹아있는 영어를 들어 볼 수 있는데, Hall(1972)이 주장한 “모국어의 억양은 언어의 학습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 일찍 습득되며, 외국어 억양을 배울 때 모국어 억양의 간섭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 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의 다양한 지역 방언과 영어 억양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살펴보면 대부분 부산 및 영남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광주 및 호남 지역 방언과 영어 억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방언 중 지역 특유의 억양을 가진 광주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모국어인 한국어 발화에서 광주지역 화자들의 억양이 서울지역 화자들의 억양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난 광주지역 화자들의 억양과 발화상의 특징이 습득언어인 영어 발화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5장에 거쳐 한국어의 방언 중 광주지역 화자가 지닌 억양과 발화 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이 영어 발화 시 전이여부와, 광주지역 억양이 영어 억양에 전이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광주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세 명과 한국의 표준어(standard form)로 알려져 있는 서울말을 사용하는 화자 세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여섯 문장과 영어 스물 세 문장을 3차시에 거쳐 녹음하는 것을 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녹음은 휴대용 녹음기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음성분석에 사용한 *Praat*과 *Praat*을 통해 추출한 문두와 문미 그리고 강세구에서의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F0*(fundamental frequency)값 및 화자 정보 등의 정리에 용이한 *Microsoft Excel 2000*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Software*를 사용하여 두 지역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발화에서 드러나는 각 음절의 소리높낮이의 평균값과 통계 값을 구하였다. Hz(헤르츠)를 기본단위로 하는 평균 소리높낮이 값을 바탕으로 광주와 서울지역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비교한 후 언어별, 문장종류별, 화자별 억양 오르내림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2장에서는 광주지역과 서울지역의 방언 억양에 대한 실험에 앞서 영어와 한국어 억양의 특징을 선행연구와 함께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억양은 어떠한 규칙 혹은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 단어 또는 문장에서 얹혀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확인 가능한 특유의 방언 억양이 영어 발화에서 모국어인 한국어 억양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 본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것이다.

제1절. 이론적 배경

1. 영어의 억양

Roach(2009)는 영어에서 어조(tone)는 소리의 높낮이 변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수평조(level tone)와 상승이나 하강의 어조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성조(moving tone)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의 경우 수평조(level tone)의 발화는 말하는 자의 의도나 감정을 싣는데 한계가 있다는 까닭에서 대화체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변화성조(moving tone)는 매우 흔히 사용된다고 하였다. 변화성조(moving tone)는 다시 한 번 내림어조(falling tone)와 상승어조(rising tone)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화자의 태도나 감정 등이 어조의 오르내림에 반영되므로 말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1음절 단어인 "yes"나 "no"를 내림어조를 사용하여 질문에 응답하였다면, 할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맺음의 역할을 하지만, 같은 단어를 상승 어조로 발화한다면 "yes"나 "no" 이후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그는 1음절 단어와는 달리 하나의 단어 내에 한 개 이상의 음절을 포함하고 있는 다음절 단어에서는 가장 강하게 강세 받는 음절(tonic syllable)에서 어조가 실려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장에 나타나는 억양은 강세를 받는 음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곽동기(1998)는 영어의 억양체계의 하나인 계층이론(level approach)을 설명하며 전상범(1995:275)에 의해 소개 된 미국의 언어학자 Prator의 억양기술방법에 따라, 영어에서 문장 강세의 위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내용어(content word) 안에 "핵강세"라고 불리는 문장 강세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내용어의 위치와 상관없이 해당 음절에 강세를 부여하여 문장의 강세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 다른 학자 Halliday(1978:41) 역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억양의 핵은 문장 끝 내용어의 강세 음절 뒤에 온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덧붙였다.

예. a. He wasn't telling the truth.
b. She's rather clever.
c. Give him a chance.
d. I saw Mr. Garrod.
e. I'll see what I can do.

(Halliday, 1978 : 27)

일반적으로 문미에서 내림 어조는 문장이 끝났음을 의미하여 평서문에서 사용되고 질문의 의도를 내포하는 문장에서는 억양을 올려 사용한다하였다. 또한, 영어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나열하는 종류의 문장 사용에서 단어의 연결을 위해 "and"나 "or"을 사용한다. 이 때 Roach(2009)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의 일반적인 억양을 살펴보면 "and"나 "or"을 기준으로 전에 나열 된 단어에서는 오름 어조를 사용하였으며, 후에 오는 단어에서는 하강 어조를 사용하여 말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국어 억양

이현복(1974)은 억양의 분석에 있어서 문장에 나타나는 리듬(rhyth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리듬은 화자가 어떤 문장의 발화 할 때, 듣는 사람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같은 문장을 발화 하더라도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에서부터 다른 어떤 단어까지 끊어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리듬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가) 언제라도좋으실때가뵙지요.
나) /′ 언제라도/, /′ 좋으실 때/, /가′ 뵙지요/.

그는 위와 같은 예를 들어 리듬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억양에 있어서 리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언제라도 좋으실 때 가뵙지요.”라는 문장을 가)처럼 읽는다면 음절을 중심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발음하여 부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나)처럼 읽을 경우 특정 음절에서 다른 음절까지 문장을 “/′ 언제라도/, /′ 좋으실 때/, /가′ 뵙지요/.”와 같이 세 “토막”에 거쳐 나누어 발화하고, 토막마다 강세를 부여하여 읽기 때문에 가)에 비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장 내의 ‘토막’은 리듬 단위(rhythm unit) 혹은 말토막이라고 불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의 억양은 화자가 부여하는 강세의 위치와 리듬 단위(말토막)의 나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장에서 강세의 위치와 리듬 단위의 차이를 공유하는 지리적 집단에 따라 사용하는 말씨를 지역 방언이라고 생각해보면, 표준어로 쓰이는 서울말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방언의 고유 억양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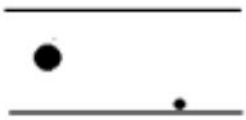
Jun(1993)은 한국어는 영어와 같이 문장 내에서 억양을 가지고 있는 성조언어(intonation language)라고 볼 수 있으나 이현복(1974)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단어 내의 특정 음절에서 강세를 받는 어휘강세(lexical stress)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억양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의 높낮이(pitch) 조절은 특정 단어의 음절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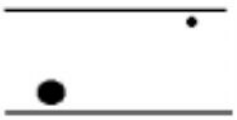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따라 나타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글자 상으로 완벽하게 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화자가 부여하는 어조에 따라 평서문이 되기도 하며 의문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끝이 떨어지는 내림억양(Low tone)을 사용하면 듣는 이는 평서문(declarative)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같은 문장에서 문장의 끝을 올리는 상승어조(High tone)로 발화하면 의문문(interrogative)의 형태로 들리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호영(1998)의 예는 Jun(1993)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음절들 사이의 높이 관계가 바뀌어도 어휘의미는 바뀌지 않고 억양 의미만 바뀐다."고 설명하였다.

학교(평서문)



학교?(되물음의문문)



이호영,1998 (이수진, 2001에서 재인용)

곽동기(1998)는 한국어의 억양체계를 설명하며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한국어에서는 어휘에 주어진 강세가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앞서 제2절 영어의 억양 부분에서 살펴보았듯, 영어의 문장에는 강세를 받는 핵음절이 존재하는데 한국어 문장에서는 영어 문장의 핵음절 대신 문미의 억양이 핵음절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문장의 종류를 좌우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숙향(198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예문을 함께 소개하며 문장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억양을 소개하였다. 이숙향(1985)은 한국어 문장에서 문미의 억양에 관한 연구의 결과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 명령문은 내림어조가 yes-no의문문에서는 상승어조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Koo(1989)는 영어와 한국어의 문두와 문미의 억양을 비교하며 이에 대해 설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다. 두 언어는 문미에서 떨어지는 억양으로 끝이 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문장의 앞부분에서 한국어는 문두를 올리고 영어는 내리며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절. 선행 연구

특정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한국어 화자가 영어로 발화하는 경우 영어 억양에 화자가 모국어를 습득하며 함께 습득한 고유의 억양이 그대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연구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주로 부산 및 경상지역 방언과 표준어(standard form)인 서울말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연구가 다수였다. 또한 전남방언을 살펴본 연구도 소수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해당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준비(1996)에 의하면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second language)를 학습할 경우 억양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의 습관이 다른 언어의 습득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한국어 화자들이 대상어(target language)인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모국어의 억양이 영어 억양에 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안혜진(2014)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특정 지역 방언의 특유의 성조 유형이 영어 발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발화에 있어서 비교적 소리높낮이(pitch)의 변화가 큰 부산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화자가 영어로 발화 할 때 나타나는 억양과 비교하였다. 연구에 앞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부산지역 방언 화자들이 사용하는 고유의 억양 패턴을 밝혀 그 특징을 명확하게 하였다. 부산방언과 서울지역 화자의 영어 발화 억양에 대한 연구는 부산지역 화자 다섯 명과 서울지역 화자 다섯 명으로 총 열 명의 참여자로 진행되었다. 피 실험자는 모두 700점대의 토익(TOEIC)점수로 비슷한 영어실력을 갖춘 남성이었으나, 화자의 연령대는 일괄되지 않았으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부산과 서울지역 화자 비교에 그치지 않고, 두 지역에서 관찰 된 각각의 영어 억양을 문장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원어민 화자의 억양과 비교였다. 분석한 지역 화자별 평균 높낮이 값을 비교하여 두 지역의 한국어 화자들과 원어민 화자가 어느 정도로 비슷한 혹은 차이가 있는 억양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수치를 제시하여 객관화된 결과를 보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 종류로 평서문에서 원어민 화자와 서울말 화자는 각각 115Hz에서 122Hz로, 139.4Hz에서 146.2Hz로 문두에서 억양이 상승하였으나, 부산지역 화자에게서는 문두의 억양이 154.2Hz에서 129.6Hz로 하강하였음을 구체적인 결과 값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문사가 포함 된 문장에서 특정 단어 “money”에 나타나는 억양을 살펴보고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하였는데, 서울지역 화자들은 비교적 원어민에 가까운 끝이 하강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과반 수 이상의 부산방언 화자들은 부산방언 억양과 같은 패턴이 영어 발화에서도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 다음 그 후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산방언 화자들에 비해 서울지역 화자가 원어민 화자의 억양에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준비(1996)의 주장과 같이 습득된 모국어 억양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영어 억양에 간섭을 받을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부산방언 억양이 영어 발화 시 억양에 있어서 그대로 전이 되었듯, 고유의 억양을 지닌 광주지역 방언 또한 어느 정도의 간섭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대성(2001)은 서울지역과 경상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발화에서 나타나는 영어 억양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인천과 서울지역 화자 다섯 명과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부산, 마산, 진주 등 경상지역 화자 다섯 명으로 총 열 명의 여성 피 실험차가 참여하였는데, 참여 연령층과 어학연수 경험의 여부,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대부터 40대로 어학연수 경험이 아예 없거나 최대 1년 이상으로 영어 실력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서울지역 화자와 경상지역 방언 화자에게 총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종류(평서문, 의문사의문문, 예-아니오 의문문, 부가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같은 문장이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에서 쓰이는 문장)의 영어 문장을 읽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재차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녹음 후 *Pra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길이와 높낮이를 분석하였고 *Microsoft Excel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 값을 정리한후, 서울지역 화자와 경상지역 방언 화자 각각의 평균을 길이와 높낮이에 따라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길이에 있어서 평서문에서는 서울지역 화자가 경상지역 방언 화자에 비해 길게 발화하였고, 다른 종류의 문장 발화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비교적 경상지역 방언 화자들이 길게 발화하였다. 특히 의문사의문문에서 비교적 서울지역 화자와 경상지역 방언 화자의 억양이 원어민 화자의 억양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문사의문문에서 원어민 화자가 L→H%로 오름어조가 나타났는데 서울말 화자 다섯 명 중 네 명이 원어민 화자와 같은 오름어조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억양으로 발화하였다. 반면, 경상지역 방언 화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L→L%로 평평한 억양을 보였고 나머지 한 명은 H→L%로 내림조로 원어민 화자, 서울지역 화자와 다른 패턴의 억양을 보였다. 경상방언 화자의 영어 발화 시 어느 정도 모국어 억양의 간섭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역 화자 또한 모국어 억양에 의한 간섭 현상이 영어 발화 억양에 나타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수진(2001)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특정 지역 방언 화자의 영어 발화 시 나타나는 억양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서울지역 방언과 억양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대구지역 방언을 특정지어 비교 연구하였다. 대구지역 방언에서 나타나는 각 문장 종류별(서술문, 의문문, 부가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억양 패턴과 그 특징을 서술하고 표준어와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억양의 차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구지역 방언의 문장 종류별 억양 특징을 살펴보면 서술문의 경우 문미의 가장 끝음절이 올라가지만, 의문문에서는 해당 문장이 의문문일지라도 문미의 억양에서 오름 어조를 띄지 않았으며 완만한 내림어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어로 간주되는 서울말에서 평서문의 경우 억양에서 내림조로, yes-no 의문문에서는 상승조로 발화되는 경향(이호영,1998-이수진,2001에서 재인용)을 보인다. 연구는 두 지역의 억양 비교를 위해 원어민 화자의 발화를 먼저 녹음한 후, 대구지역과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영남대학교 학생으로 구성 된 대구지역 화자 다섯 명과 중앙대학교 학생으로 구성 된 서울지역 화자 다섯 명으로 총 열 명의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구성하였다. 화자별 녹음 후 문두와 문미에서 나타나는 *F0*곡선의 차이와 문장 내에서 가장 강세 받는 단어의 *F0*값과 발화 길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어 발화에서 서울지역 화자는 모든 문장에서 문두의 *F0*가 대구지역 화자보다 낮았으며,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F0*곡선 형태를 보였는데, 서울지역 화자와는 반대로 대구지역 화자는 비교적 높은 피치로 시작하며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F0*곡선의 형태를 보였다. 한국어 발화에서 서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명령문 등 여러 종류의 문장 문미에서도 서울지역 화자와 대구지역 방언 화자의 *F0*곡선 형태가 문두에서처럼 상이하였다.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났듯 영어 발화에서 또한 서울지역 화자의 문두 소리높낮이가 대구지역 화자보다 낮았고 서술문 문미에서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F0*곡선의 형태를 보였다. 서울지역 화자의 *F0*곡선은 원어민 화자의 영어 발화에서 나타난 *F0*곡선 형태와 일치하였는데, 원어민 화자와 서울지역 화자의 *F0*곡선과 대구지역 화자와의 *F0*곡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 화자가 지닌 모국어 억양 패턴이 영어 발화에 전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는 광주지역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억양 또한 영어 발화 시 전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Ko(2009)는 앞서 살펴보았던 부산, 경상지역 방언과 영어 억양에 중점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전남방언의 억양이 영어 억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인 Jun(1993)의 연구에서 입증된 전남방언의 기저억양 패턴을 바탕으로 실제로 전남지역 화자들의 발화에 기저억양 패턴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기저억양 패턴에 영어발화에서도 얹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전남과 서울 두 지역의 화자들은 전남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여섯 명과 서울지역 화자 네 명으로 초급에서 초중급 정도의 영어 능숙도를 지닌 21세부터 5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로 구성되었다. 전남지역과 서울지역의 한국어 화자 외에도 한국의 사설학원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미국인 화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녹음자료를 제시하여 읽도록 요청한 후 컴퓨터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읽기자료는 6문장의 한국어와 24문장의 영어로 구성하였는데, 의미가 비슷한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나열하여 억양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읽을 것을 요청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며 발화 강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없이 2차시에 거쳐 녹음하였다. 그런 다음, *Praat program(2009 ver.)*를 사용하여 피치곡선(pitch contour)을 추출하여 전남방언 억양 관련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전남 방언화자들의 기저패턴(L-H-L)이 영어 억양에서 전이가 일어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남방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억양 패턴은 서울말 화자 및 원어민 화자의 억양 패턴과 같지 않았으며, 전남지역 고유의 방언 억양인 L-H-L의 패턴이 확인되었음을 입증하였다. Ko(2009)는 한국어 발화 억양과 영어 발화 억양에서 유사한 L-H-L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모국어 억양의 전이가 목표어의 억양에 일어났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광주지역 방언과 서울말의 억양

가. 광주지역 방언 억양의 특징

Jun(1989,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전남방언의 *F0*곡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조에는 L-H-L(Low-High-Low)패턴과 H-H-L(High-High-Low)의 두 종류 기본 유형이 얹혀 나타나는데, 이것을 기저음조선율(underlying tone melody)라고 한다. 이러한 기저 음조 선율은 구내 첫 번째 분절음(segment)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먼저 [+ spread]나 [+ constricted]에 해당하는 음인 /ph/, /th/, /kh/, /ch/, /h/, /s/, /pp/, /tt/, /kk/, /cc/, /ss/가 구내 첫 음가일 경우 H-H-L의 억양이 실현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L-H-L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Ko(2009)는 Jun(1989)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남방언 화자의 억양이 영어 억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전남억양의 기저패턴으로 알려진 L-H-H이 실현되는지 확인하였다. 전남방언 화자의 영어 억양을 서울말과 영어 원어민의 억양에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전남방언의 L-H-L 기저패턴을 밝히고, 전남방언에서 발화의 첫 음이 무성파열음 [p], [t], [k]일 경우 H-H-L 패턴을 보였음을 입증하였다.

나. 서울말 억양의 특징

Jun(1993)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말의 강세구(Accentual Phrase)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Low-High-Low-High와 High-High-Low-High의 두 가지 성조 형(tonal pattern)이 존재한다고 하며, 두 성조 형은 강세구(AP)의 첫 음절에 따라 그 패턴이 갈리게 된다고 하였다. tense를 갖거나 기식음(aspirated)에 속하는 자음 [ㅍ], [ㅌ], [ㅋ], [ㅊ]가 첫 음절에 있다면 해당 강세구는 오름성조로 시작하는 H-H-L-H의 억양 패턴이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림성조로 시작하여 L-H-L-H의 성조 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서울말에서 나타나는 IP(intonation Phrase)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냈다.

광주와 서울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기저억양 패턴을 토대로 광주지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서울지역의 기저억양 패턴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L-H-L과 H-H-L로 말의 끝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떨어지며 끝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기저억양 패턴은 L-H-L-H와 H-H-L-H로 광주지역의 기저억양 패턴과는 상이하게 말의 끝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올라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억양은 말의 끝이 오르는지 또는 떨어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 3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1절.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광주지역 화자가 영어 발화에서도 지역 방언 고유의 억양을 나타내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화자 중 표준어로 간주되는 서울말을 사용하는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억양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중심인 광주지역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억양을 확인한 후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광주지역 화자 집단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화자 집단으로 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피 실험자는 광주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세 명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화자 세 명으로 총 6명의 두 지역 화자이다.

서로 다른 두 지역 억양의 비교를 위해 참여자들은 모두 광주와 서울지역 방언의 억양을 최대한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화자여야 함을 염두 해 두고 선정하였다. 마리나 야겔로(1994)는 화자가 속한 사회적 신분, 소속 민족, 연령, 직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性)에 따른 언어 사용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러한 관점은 지방 방언의 억양과 특징을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는 화자의 조건으로 성별을 선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게다가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중 여성이 비교적 동일사회집단의 남성보다 표준어형(standard form)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우윤식,2002) 있어 남성 화자를 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험자로 정하였다.

연구는 편의상 광주방언을 사용하는 광주지역 화자들을 A집단, 서울말을 사용하는 화자들을 B집단이라고 지정하였다. A집단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화자 3명은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남성으로 출생지와 자라온 지역 모두 광주광역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일치한다. B집단인 서울지역 화자 3명 역시 A집단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의 남성으로 태어난 곳과 자라온 곳 모두 서울특별시로 동일하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 A, B집단의 실험대상자는 모두 동일한 성별과 비슷한 연령대의 화자로 구성되어있지만, 각자 다른 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영어 비(非)전공자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처음 영어에 노출된 시기와 학습의 정도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영어 능숙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화자 정보는 <표1>과 같다.

집단	이름	나이	출생지	거주지	어학연수 경험	토익 점수
A	KYJ	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O (3개월)	700↑
	OMS	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X	600↑
	PSK	2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O	800↑
B	HWJ	2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O (11개월)	800↑
	LDS	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X	800↑
	HKS	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X	800↑

<표1> 광주와 서울 지역 피 실험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절. 연구 자료 및 도구

선정된 여섯 명의 A, B집단에 속한 화자들은 *ZOOM*사의 *H4n*기종의 휴대용 녹음기와 *Shure*사의 *WH30* 기종의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제시 된 스물아홉 개의 문장을 총 3차시에 거쳐 읽음과 동시에 녹음하였다. 녹음자료로 제시되었던 스물아홉 개의 문장은 한국어 여섯 문장과 영어 스물세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여섯 문장의 경우, 광주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 집단과 서울지역 화자 집단이 사용할 문장에서 지역 방언의 억양의 관찰을 위해 문장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읽게 하였다. 광주지역 방언 억양을 유도하는데 단순히 표준어로 쓰인 문장을 읽게 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 방언 화자가 사용할 여섯 개의 한국어 문장은 호남방언의 구어체로 쓰여 진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3권과 「한강」7권에서 발췌하였다.

광주지역 화자 집단에 제시 된 한국어 문장 중 *문장(06)*의 경우, 명사를 나열하는 문장의 유형에 드러나는 광주방언의 억양을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췌하지 않고 별개로 추가하였다. 한국어 *문장(06)*은 녹음 자료로 제시된 문장 중 광주지역 화자 집단과 서울말 화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녹음하였던 영어 *문장(01)*과 같이 명사의 나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화자의 녹음 자료로 사용한 여섯 개의 한국어 문장은 광주지역 화자 집단에 쓰였던 발췌 문장들을 표준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화자들의 영어 억양 비교를 위해 사용 된 스물세 개의 영어 문장은 Roach(2009) 중 chapter18과 chapter19에 거쳐 다루어지고 있는 “Functions of Intonation” 부분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문장들과는 달리 영어 문장은 광주지역 화자와 서울지역 화자 모두 공통으로 쓰였다. 녹음 자료로 사용되었던 스물아홉 개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 A집단에서 사용 된 한글 문장 >

(01) 택시는 멀라고 탈라고 그냐?「한강 7권, p313」
(02) 큰절은 무슨 큰절이여. 냅두고 그냥 앉어.「한강 7권, p261」
(03) 때리고 잡은께 때렸겄제, 때리기 싫은디도 때렸겄어?「태백산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권, p64 」

(04) 음마, 회장님도 무슨 말씀얼 그리 섭하게 하시는지 모르겄네라.
「 태백산맥 3권, p195 」

(05) 딱 부러지게 결정이 안 나고 날만 질질 끌어간께 답답허고 애가 타서 허는 소리제. 「 태백산맥 3권, p215 」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겄다.

< B집단에서 사용 된 한글 문장 >

(01) 택시는 뭐하려고 타려고 그러니?

(02) 큰절은 무슨 큰절이니. 내버려두고 그냥 앉아.

(03) 때리고 싶으니까 때렸겠지. 때리기 싫은데도 때렸겠어?

(04)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05) 딱 부러지게 결정이 안 나고 날만 질질 끄니까 답답하고 애가 타서 하는 소리지.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겠다.

< A, B집단에서 공통으로 사용 된 영어 문장 >

(01) Red, brown, yellow or blue. (p147)

(02) Because I can't afford it. (p208)

(03) Is the price going up? (p156)

(04) I won’t have any tea, I don’t like it. (p155)

(05) You didn’t say anything about rates. (p21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06) Where did you park the car? (p156)
(07) It wouldn’t be difficult to find out. (p216)
(08) Have you ever considered writing? (p216)
(09) I have got to take the dog for a walk (p157)
(10) Is there anything you wouldn’t eat? (p216)
(11) The conservatives who like the proposal are pleased. (p155)
(12) Seven o’clock, seven thirty and eight. (p208)
(13) What was the name of the place? (p207)
(14) There wasn’t even a piece of bread in the house. (p207)
(15) We try to do our shopping in the market. (p216)
(16) Which was the cheap one did you say? (p207)
(17) If I give him money, he goes and spends it. (p206)
(18) They are coming on Tuesday, aren’t they? (p156)
(19) The Japanese for some reason or other drive on the left like us. (p158)
(20) This train is for Leeds, York and Hull. (p206)
(21) As I expect you’ve heard, they are only admitting emergency cases. (p158)
(22) Can you give me a lift? (p207)
(23) Since the last time we met when we had that huge dinner I have been on a diet. (p157)

제3절. 연구 절차

녹음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어 여섯 문장, 영어 스물세 문장으로 총 스물아홉 문장이며 한국어 문장은 광주지역 화자 집단과 서울지역 화자 집단에서 사용한 문장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으나, 영어 문장은 완벽하게 같은 문장들로 사용하였다. 광주지역 화자 집단인 A집단의 경우 음성 녹음을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발화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지역 방언 억양의 유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 따라 A집단에서 사용한 한국어 문장들은 B집단에서 사용한 한국어 문장들과는 달리 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지역 방언의 구어체로 쓰인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과 「한강」에서 영어 문장과 같은 유형으로 쓰여 진 일부 문장들을 골라 발췌하였다.

반면 B집단에 속하는 화자들에게는 A집단에서 사용하였던 여섯 개의 호남방언 발췌문장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문장을 표준어로 바꾸어 제시하여 읽게 한 후 녹음하였다. 실험은 A집단과 B집단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와 영어로 된 총 스물아홉 문장을 3차시에 거쳐 읽고 녹음하였다. 녹음은 한 차시 당 하나의 언어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읽고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녹음하는 방식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거쳐 반복 녹음하였다. 녹음 도중 부정확한 발음의 단어나 부적절한 조사 사용 등 발화에 실수가 있다고 하여도 재시도 없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읽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피 실험자들의 음성 녹음은 *ZOOM*사의 *H4n* 기종의 휴대용 녹음기와 *Shure*사의 *WH30* 기종의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비교적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되도록 잡음이 함께 녹음 될 가능성이 적은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화자 개인의 정의적 특성, 주변 환경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톤, 발음 등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탁 트인 공간보다는 빈 강의실 또는 남학생 휴게실에서 단독으로 녹음하게 하였다.

광주지역 화자와 서울말 화자의 문장 읽기로 생성 된 음성 파일은 WaveSound file 형태로 녹음기에 저장되었으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용 녹음기에서 PC로 옮겨 각 지역별(광주-서울), 화자별(광주-서울), 언어별(한국어-영어), 녹음차시별(1, 2, 3차시)로 폴더를 달리하여 분류 한 후 저장하였다. 각 음성 파일들은 한국어 여섯 문장, 영어 스물세 문장이 통째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문장 단위의 분절 작업을 위해 음성분석용 프로그램인 *Praat*을 이용하였다. *Praat*을 통해 이루어진 문장 분절 작업은 3차시의 녹음 중 두 번째 차시로 녹음되었던 파일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문장 단위로 분절 된 피 실험자들의 발화 녹음은 다시 *Praat*을 사용하여 해당 언어와 문장의 순번을 나타내는 각주를 달아 TextGrid file로 전환하여 저장하였다. 이 때, 각주에 표시 된 해당 언어와 문장 순서는 한국어 문장일 경우 “K”, 영어는 “E”로 시작하여 문장의 번호를 함께 기입하여 두 번째 차시로 녹음되었던 모든 파일에 적용하였다. 분절된 문장들은 다시 한 번 음절 단위로 쪼개서 모음에 강세 구 단위로 각주를 달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통으로 사용 된 영어 문장>

(01) /Red, /brown, (/yellow or ₩blue.) (p147)
(02) Because I can't (a₩fford it.) (p208)
(03) Is the /price (going up?) (p156)
(04) I won't have (any/tea,) I don't(₩like it.) (p155)
(05) You didn't say anything (about/rates.) (p216)
(06) Where did you park (the₩car?) (p156)
(07) It wouldn't be difficult to (find/out.) (p216)
(08) Have you ever (considered/writing?) (p216)
(09) I have got to take (the₩dog for) a walk (p157)
(10) Is (there/anything) you wouldn't eat? (p216)
(11) The conservatives who like the proposal (are₩pleased.) (p155)
(12) Seven o/clock, seven /thirty (and ₩eight.) (p208)
(13) What was (the₩name of) the place? (p207)
(14) There wasn't even a piece (of ₩bread in) the house. (p207)
(15) We try to do our shopping in (the ₩market.) (p216)
(16) Which was (the /cheap one) did you say? (p207)
(17) If I give him /money, he goes (and ₩spends it.) (p206)
(18) They are coming on ₩Tues(day, /aren't they?) (p156)
(19) The Japanese for some reason (or /other) drive on (the ₩left like ₩us.) (p158)
(20) This train is for /Leeds, /York (and ₩Hull.) (p206)
(21) As I expect you('ve ₩heard,) they are only admitting (e₩mergency) cases. (p158)
(22) Can you give me (a /lift?) (p206)
(23) Since the last time we met when we had that huge dinner I have been (on a ₩diet.) (p15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체 문장 혹은 문장 내 특정 강세 구에 쓰인 모음 강세구를 비교하기 위해 음절 언어인 한국어는 Jun(1993)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Accentual Phrase(AP)를 참고하여 모든 음절의 모음에 각주를 달았다. 반면 강세 언어인 영어의 경우 Accentual Phrase가 한국어에 비해 분명히 나누는데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발췌하였던 Roach(2009)를 참고하여 억양의 변화가 예상되는 강세 음절을 포함하여 주변 모음에만 각주를 달았다. 영어 문장의 강세구내에서 강세 모음을 "5"로 통일하여 "5"를 기준으로 하였고, 앞에 위치한 모음을 "4", 그 뒤에 위치한 모음은 '6'으로 지정하였다. 예를 들면 문장 *(14) There wasn't even a piece of Wbread in the house* 에서 강세 구 *"of bread in the house"*의 억양 변화를 예상 할 수 있는데, 이 때 강세 음절 *bread*를 "5"로 하고 *bread*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of*는 "4", *in*은 "6"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스물세 개의 모든 영어 문장 모음에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각주 작업 후, 한국어와 영어 문장을 문장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 나열, 명령문의 순서로 1부터 5의 숫자를 붙여 분류하였다.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비해 개수가 적었던 부가의문문의 경우 yes-no의문문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앞서 문장 종류에 따라 붙인 번호를 포함하여 *Microsoft Excel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 언어, 화자, 모음 번호, 문장 종류를 순서대로 기입하였다. 그런 다음, 음절 단위로 쪼갰던 모음의 *F0*값만을 추출하여 *IBM SPSS Statistics Software*를 이용하여 비교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국어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문두와 문미 강세 구를, 영어는 위의 영어 문장 목록에서처럼 평서문과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의 괄호 안의 문장 강세 음절 주변의 억양을 살펴보았다.

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분석결과 및 논의

광주와 서울 지역 화자들의 3차시 음성 녹음 중 두 번째 차시에 한하여 *Praat*을 통해 문장의 각 음절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F0*값을 추출하여 *IBM SPS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atistics Software*를 사용하여 광주와 서울 지역, 문장의 종류, 문장 내 강세구별 위치 등에 따라 각각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크게 평서문과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 총 세 종류의 문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문장의 종류가 나열이나 명령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억양의 변화가 예상되는 강세구가 평서문 혹은 의문문의 형태를 나타낸다면 평서문 혹은 의문문(yes-no 의문문 혹은 의문사 의문문)으로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1. 한국어

먼저 모국어인 한국어 발화에 있어서 광주지역 화자들에게서 서울말의 억양과 다른 억양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만약 광주지역 화자의 발화 억양이 서울말의 억양과 다르다면 두 지역 간의 억양에 어떠한 억양의 오르내림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광주지역 화자와 비교 군으로 살펴보게 될 서울말 화자의 한국어 발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모든 문장의 모든 음절에서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는 *F0*값을 추출하였으나, 문두와 문미의 억양에 유의미한 차이를 예상하여 결과를 입증하였던 많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억양의 변화가 예상되는 문두와 문미에 초점을 두었다. 문장의 문두에 해당되는 첫 음절에서 부터 네 번째 음절까지에 해당하는 문두의 강세구와 문장 끝의 네 음절 혹은 다섯 음절을 음성 분석용 프로그램인 *Praat*과 *IBM SPSS Statistics Software*를 사용하여 *F0* 평균값을 산출하여 두 지역 간 억양 비교에 용이하도록 실선(광주)과 점선(서울)을 사용해 그래프로 그려 시각화하였다.

가. 한국어 평서문 문두 강세 구

두 지역 방언 화자의 한국어 평서문 문두 발화에서 평균 소리높낮이는 광주지역 말의 경우 첫 음절에서 155.39Hz를 시작으로 마지막 음절에서는 123.00Hz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서울지역 화자의 발화에서는 1음절에서 173.29Hz로 시작해서 강세구내에서 마지막 음절인 4음절에서는 127.33Hz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화자의 한국어 발화에서는 첫 음절에서 두 번째 음절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억양을 보였지만, 두 번째 음절에서 세 번째 음절로 발화하는 과정에서 하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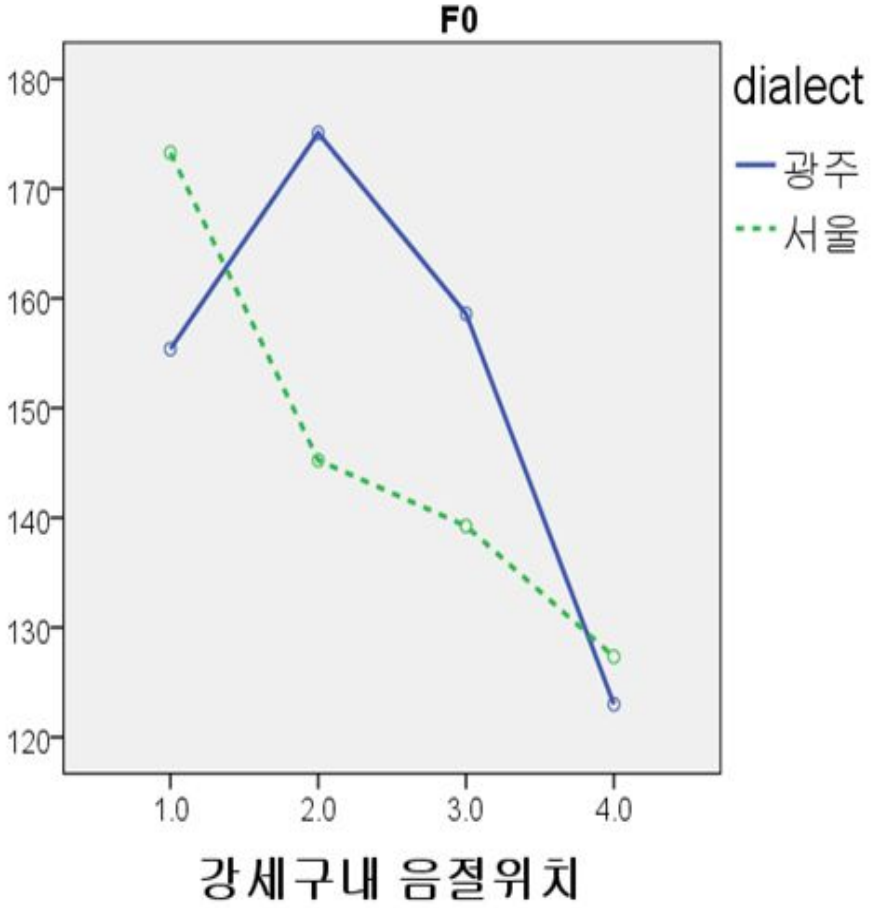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하였다. 그런 다음 강세구내 마지막 음절까지 다시 한 번 35.58Hz의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였다.

반면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발화에서는 첫 음절이 광주지역 억양에 비해 높은 173.29Hz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음절까지 28.04Hz의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였고 그 후 세 번째와 네 번째 음절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억양 패턴을 보였다.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평서문문장 문두 강세구내 평균 소리높낮이 통계 값에서는 광주와 서울지역의 두 방언 간의 차이는 $F(1,85)=0.287$, $p=.594$ p값이 .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광주지역 방언과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발화에서 나타난 문두의 억양 곡선은 다음 <그래프1>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모든 그래프에서 x축은 한국어 문장 문두의 강세 구내에서 음절의 위치를 수치를 나타내며, y축은 단위를 Hz(헤르츠)로 하며 10Hz 간격으로 하였다. 또한, 그래프에서 실선은 광주지역 화자에 의해 발화 된 광주 말 억양을, 점선은 서울말 화자의 억양을 나타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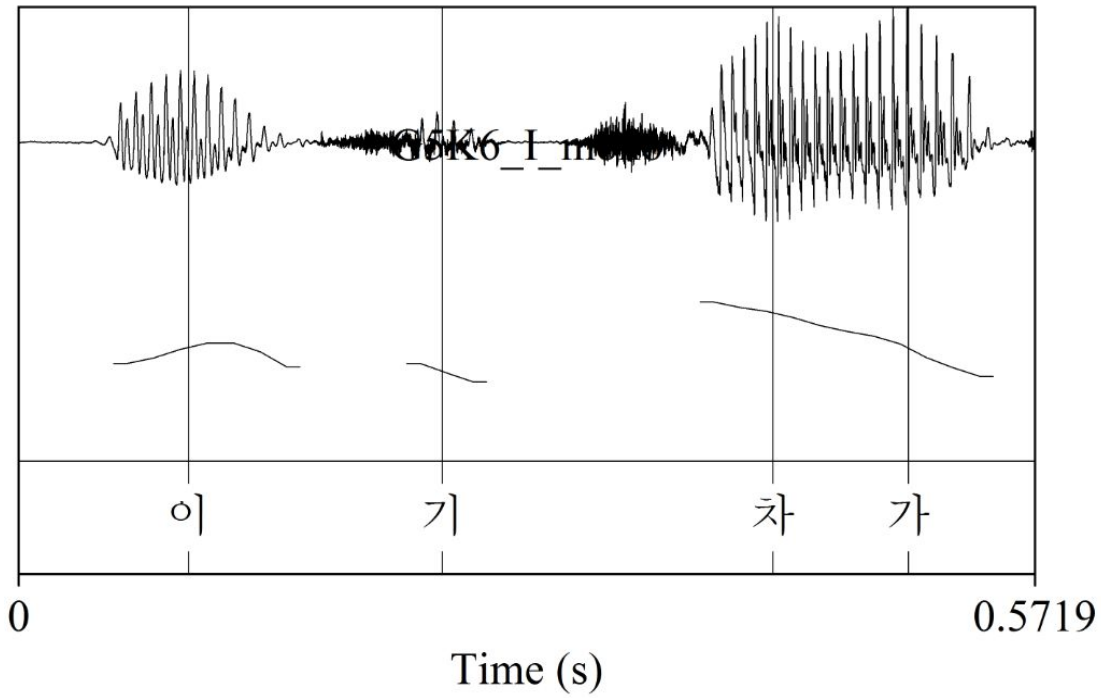


<그래프1> 광주와 서울말 화자의 한국어 평서문 문두 강세구내 억양

광주와 서울말의 평서문 문두 네 음절에서 나타나는 억양의 오르내림 차이는 <그래프1>과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 지역 화자들의 억양에서는 첫 음절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두 번째 음절에서 가장 강세 받아 높이 나타났으며 그 후 3음절과 4음절에서 떨어지는 억양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서울말의 경우 첫 음절에서 광주 말의 억양과 달리 큰 폭으로 하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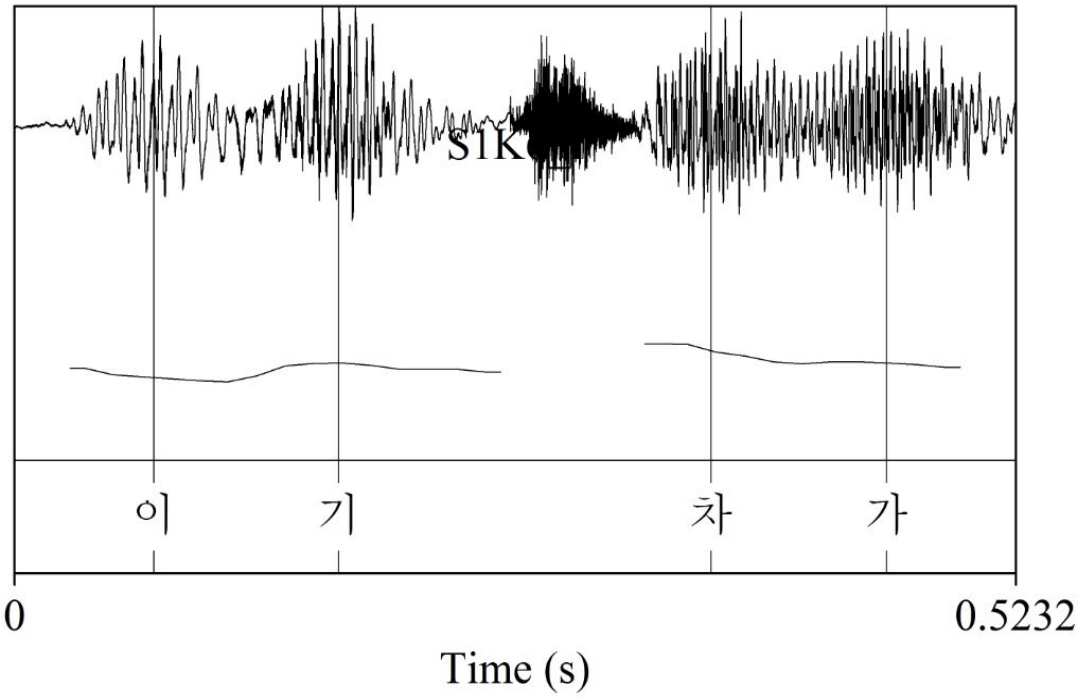
<그림1-1> 광주지역 화자 PSK,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문두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림1-1>은 광주지역 화자인 PSK가 평서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문두인 *"이 기차가"*를 발화했을 때 각 음절에 나타난 파형과 억양 곡선이다. 앞서 제시한 <그래프1>에서 나타난 한국어 평서문문장 문두의 평균 소리높낮이(*F0*) 그래프와 같이 광주지역 화자 PSK의 억양곡선이 첫 음절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가 두 번째 음절에서 떨어지고 문두 강세구내 마지막 네 번째 음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어 <그림1-1>과 <그래프1>의 억양 곡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1-2> 서울지역 화자 HWJ,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문두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림1-2>는 서울지역 화자 HWJ에 의해 발화 된 한국어 여섯 번째 문장 문두에 속하는 *"이 기차가"*를 발화했을 때 나타난 해당하는 파형과 억양곡선으로, <그림1-1>의 광주지역 화자 PSK에 의해 발화 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그래프1>에서 확인하였던 한국어 평서문 문두의 네 음절 억양과 같이 첫 음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억양곡선을 보인다. 이 때, <그래프1>의 경우 소리의 높낮이 범위를 한정하여 억양의 오르내림을 확대해서 시각화한 자료이므로 <그림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억양곡선의 오르내림이 그래프에서만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한국어 평서문 어말 강세 구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발화에 사용하였던 여섯 개의 녹음자료를 문장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과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으로 구분하여 문장의 종류에 따라 두 지역 화자가 억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한국어의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 어말의 강세 구를 중심으로 *F0*값을 추출하였고, 어말 강세구의 다섯 음절을 살펴보았다. 평서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은 *문장(02), 문장(04), 문장(05), 문장(06)*으로 *문장(01)*과 *문장(03)*을 제외 한 네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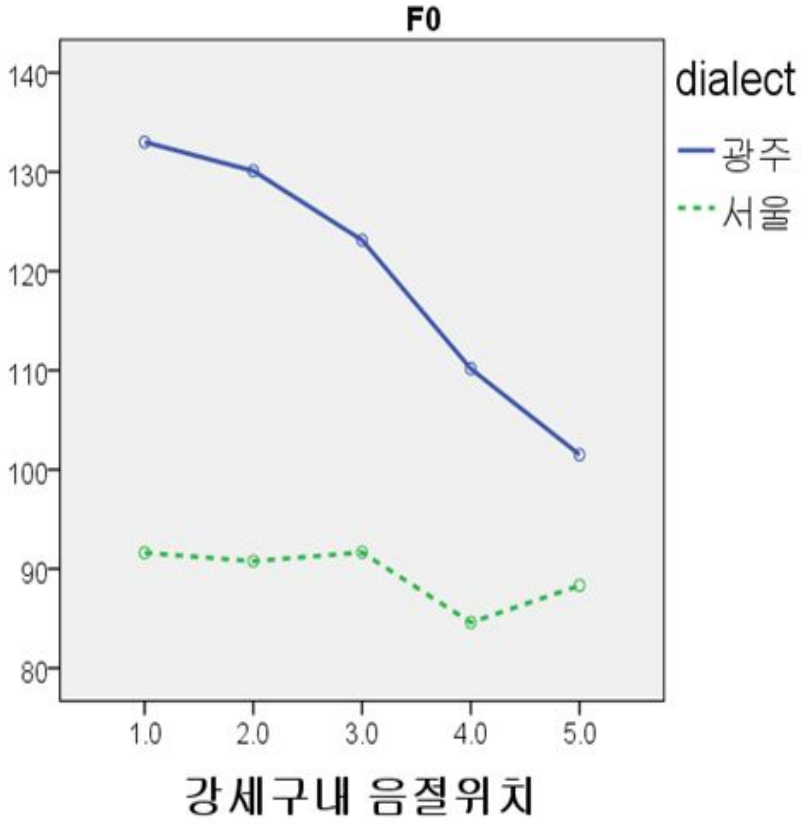
광주지역 화자로부터 발화된 한국어의 평서문 어말에서 첫 음절이 133.00Hz로 시작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 음절에서는 101.50Hz로 나타났다. 서울말에서는 첫 음절이 91.63Hz로 시작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 음절에서는 88.33Hz의 평균 *F0*값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어 문두 강세구내의 억양에서처럼 광주지역 화자보다 서울지역 화자가 41.37Hz 정도 낮은 수치로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광주지역 방언의 경우 첫 음절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억양을 보였다. 특히 3음절에서 4음절 사이에 12.96Hz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때 비교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억양에서는 미미한 차이로 1음절에서 2음절까지 떨어졌다가 3음절에서 상승하였으나, 다시 4음절에서 하강하여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하는 L-H-L-H의 전형적인 서울말 억양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평서문 문장에서 어말의 강세구내 억양에서 두 방언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한 것으로 ($F(1,66)=68.285$, $p<.001$) 드러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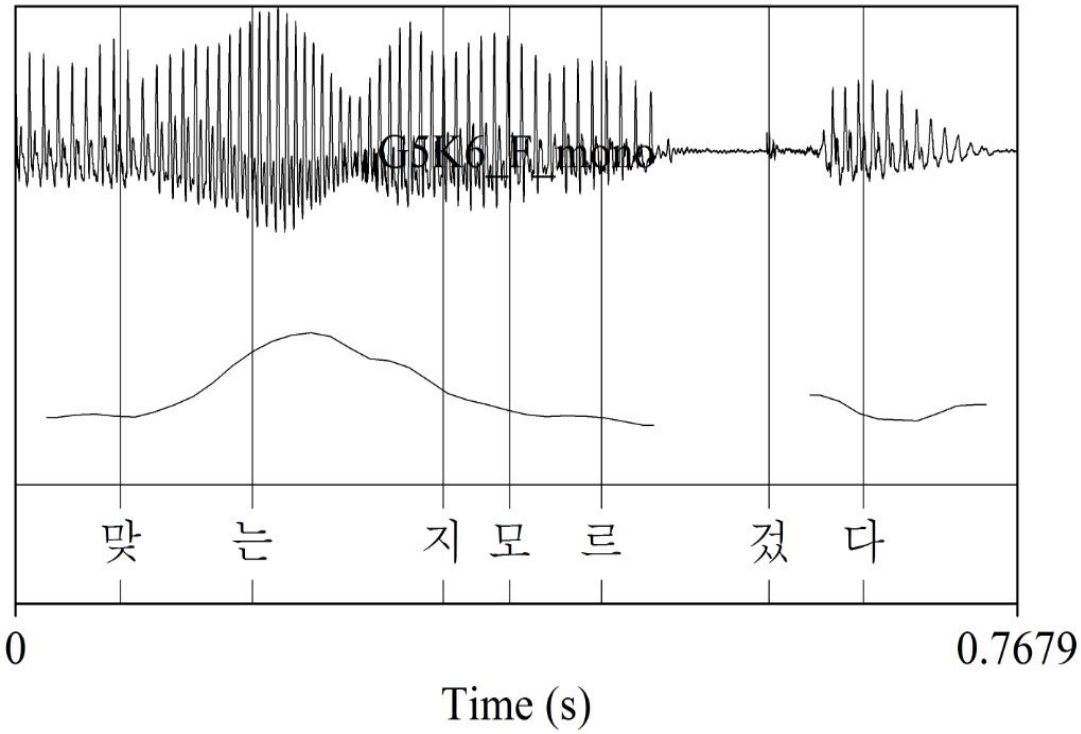


<그래프2> 광주와 서울말 화자의 한국어 평서문 어말 억양

두 지역의 한국어 평서문 어말 억양을 나타내는 <그래프2>는 앞서 보았던 한국어 평서문 문두 그래프에서처럼 광주와 서울말 간의 뚜렷한 억양의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역 억양은 서울지역에 비해 비교적 큰 낙폭으로 3음절에서 4음절로 떨어지며 첫 음절을 시작으로 마지막음절까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떨어졌다가 오르고 다시 떨어졌다가 오르는 억양을 반복하였다. 점선으로 표시된 서울말은 Jun(1993)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던 바와 같이 전형적인 서울말의 기저억양패턴인 L-H-L-H가 얹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두 지역 화자들의 한국어 평서문 어말 억양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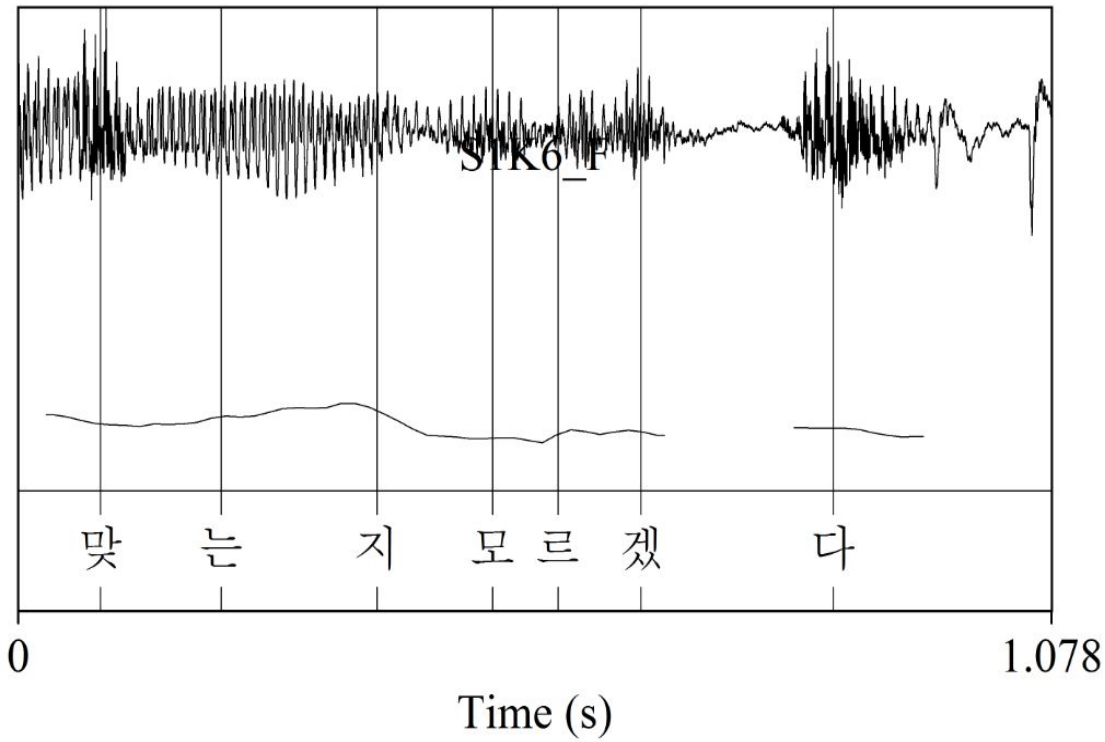
<그림2-1> 광주지역 화자 PSK,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어말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겄다.

<그림2-1>은 한국어 읽기 자료에서 평서문에 해당하는 문장 (06)의 어말인 *"모르겄다."*를 광주지역 화자 PSK가 발화하여 나타나는 파형과 억양곡선이다. <그래프2>는 어말의 다섯 음절 모두에서 떨어지는 억양이 나타남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억양곡선을 <그림2-1>을 통해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음절인 *"겄"*에서 화자가 거의 모음을 생략하여 발화하였기 때문에 해당음절의 소리높낮이 값을 추출하는데 실패하여 <그림2-1>에서 억양곡선이 생략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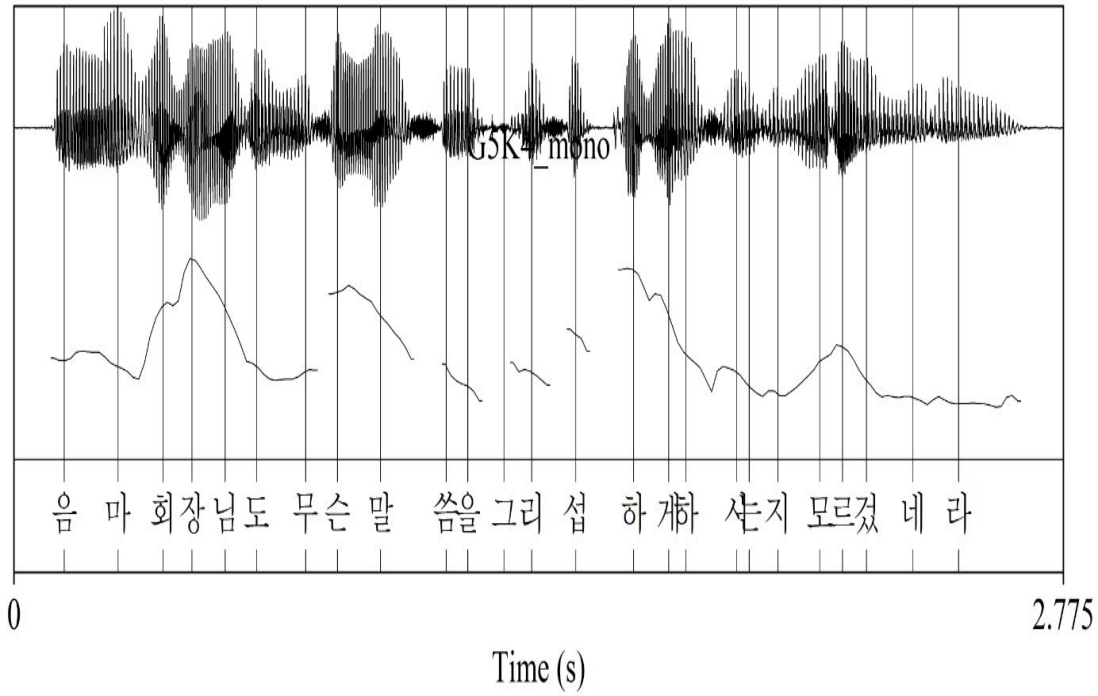
<그림2-2> 서울지역 화자 HWJ, 한국어 평서문 *문장(06)* 어말

(06) 이 기차가 정읍이랑 익산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림2-2>는 <그림2-1>과 같이 평서문인 한국어 *문장(06)*을 발화한 서울지역 화자의 파형 및 억양곡선이다. <그림2-2>에서 문장 끝 부분 다섯 음절에 해당하는 *"~지 모르겠다."*부분을 보면 <그래프2>에서 보다 비교적 적은 폭이지만, 떨어지고 오르며 다시 떨어지고 오르는 것을 반복하는 억양곡선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주지역 화자의 억양과는 달리 서울지역 화자의 억양에서는 서울말의 기저억양패턴인 L-H-L-H의 성조 형을 볼 수 있으며, 두 지역의 한국어 평서문문장 어말에서 억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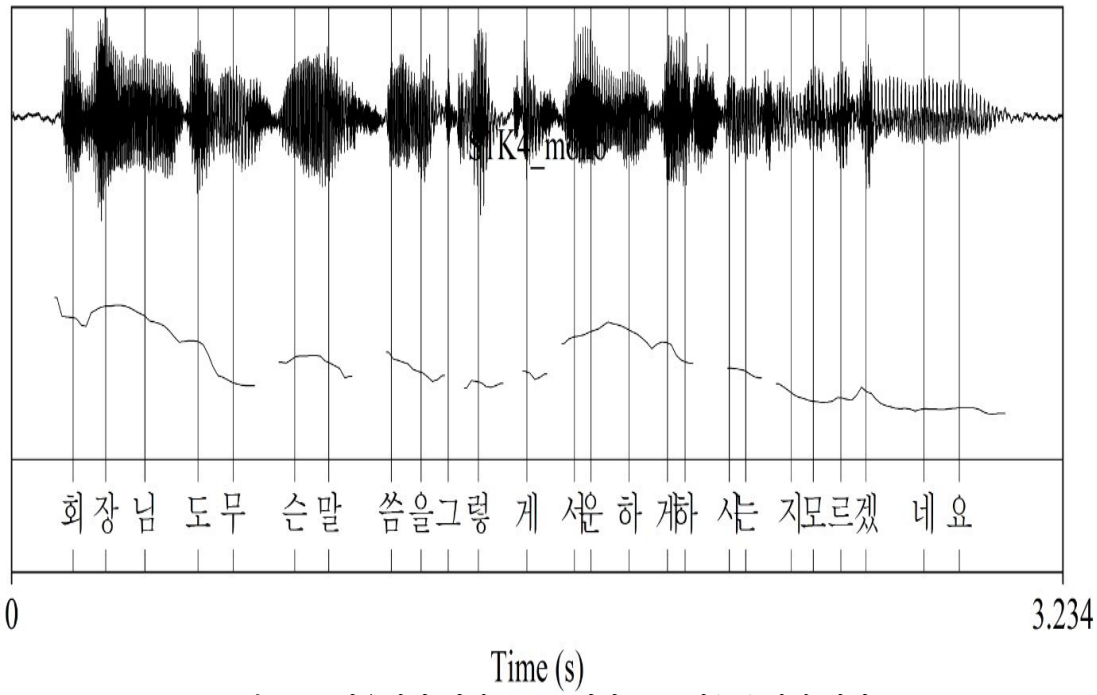
<그림2-3> 광주지역 화자 PSK, 평서문 *문장(04)* 전체 발화

(04) 음마,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그리 섭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라.

<그림2-3>은 평서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04)*을 광주지역 화자가 발화하여 나타난 파형과 억양곡선이다. 앞서 <그래프1>과 <그래프2>에 평서문에서 문장의 문두와 문미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두 그래프에서처럼 문장의 문두 네 음절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억양곡선을 *"회장님도"*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울말 화자와의 비교를 위해 광주지역 방언 특유의 추임새 *"음마"*는 문두 음절에서 제외한다.) 또한 문미의 다섯 음절 *"모르겠네라."*의 억양곡선이 *F0* 평균 값 그래프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2-4> 서울지역 화자 HWJ, 평서문 *문장(04)* 전체 발화

(04) 회장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림2-4>는 <그림2-3>과 같이 한국어 *문장(04)*는 평서문에 해당하며 서울지역 화자에 의해 발화되어 나타난 파형과 억양곡선을 *Praat*을 통해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2-4>의 문두 네 음절 *"회장님도"*를 보면 억양 곡선의 내림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래프1>의 평균 *F0*값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내림-오름-내림-오름의 억양 곡선이 나타나는 문미의 다섯 음절 *"모르겠네요"*는 <그래프2>에서 확인한 성조 형 L-H-L-H와 같이 서울말의 기저 억양 패턴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한국어 의문문 어말 강세 구

평서문 외에도 다른 문장 종류로 한국어에서 의문문으로 발화 시 나타나는 억양 확인을 위해 문장 어말의 강세 구 평균 *F0* 값을 분석하였다. 평서문에서는 어말 강세 구의 다섯 음절을 확인하였으나 의문문에서는 네 음절을 살펴보았다. 의문문은 *문장(01)*과 *문장(03)* 두 문장으로 평서문의 개수(4문장)에 비해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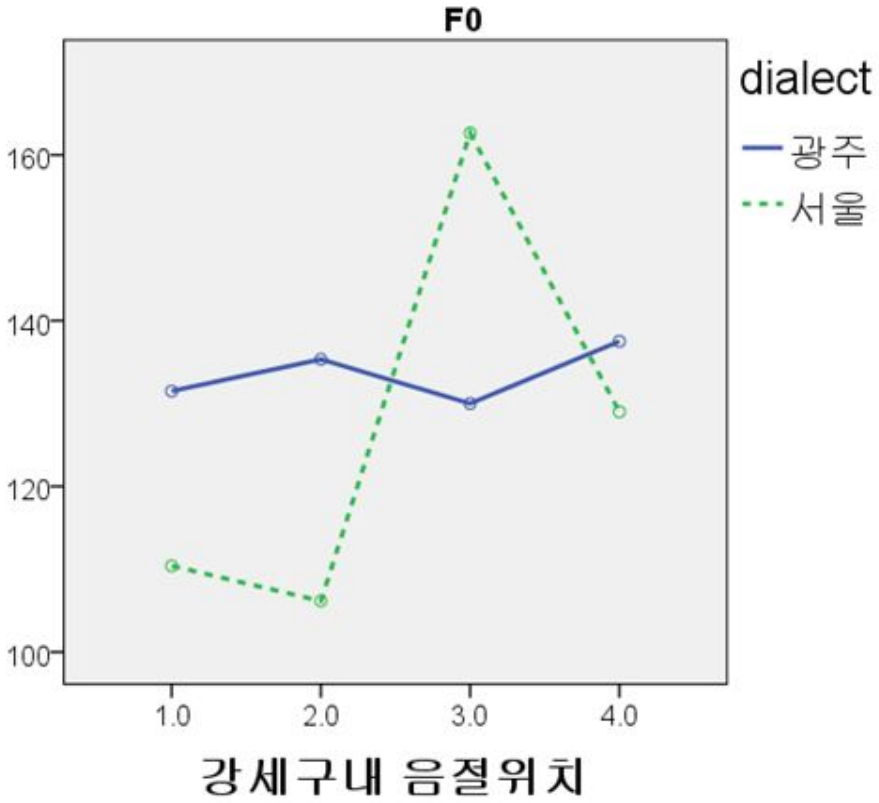
의문문 어말 강세 구에서 광주지역 소리높낮이의 첫 음절은 131.50Hz로 시작하여 마지막 4음절에서 137.50Hz로 끝이 났고, 서울지역 억양은 110.40Hz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음절에서 129.00Hz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억양은 131.50Hz에서 135.33Hz로 상승, 130.00Hz로 하강 그리고 다시 137.50Hz로 상승하는 패턴의 억양을 보였으나,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큰 서울말에 비해 억양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지역 억양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지역 화자집단에서는 첫 음절에서 두 번째 음절까지 떨어지는 억양을 나타내다가 두 번째 음절 106.17Hz에서 세 번째 음절 162.67Hz사이에서 56.5Hz의 큰 차이로 급격하게 오르는 억양의 특징을 보였으며, 세 번째 음절에서 129.00Hz의 마지막 음절 발화까지 다시 한 번 33.67Hz의 차이로 떨어지는 억양을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어 의문문의 어말에서 광주지역 화자의 경우 끝이 올라가는 억양을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말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억양을 보였다는 점에서 두 지역 의문문 발화에 유의미한 차이(F=1,35)=.078, p=.782)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래프3>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어말 억양

한국어의 의문문 발화에서 광주지역 억양은 첫 음절에서 두 번째 음절까지 오르고 그 후 세 번째 음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네 번째 음절에서 오르는 반면, 서울말은 첫 음절에서부터 광주지역 억양과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 억양 그래프를 보면 첫 음절에서 광주지역과 달리 떨어지고 두 번째 음절에서 세 번째 음절까지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며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음절에서 마지막 음절까지 큰 폭으로 하강하는 억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소리높낮이 그래프를 통해 한국어 의문문 어말에서 억양의 변화가 크지 않은 광주지역 억양에 비해 상당한 낙폭의 차이를 보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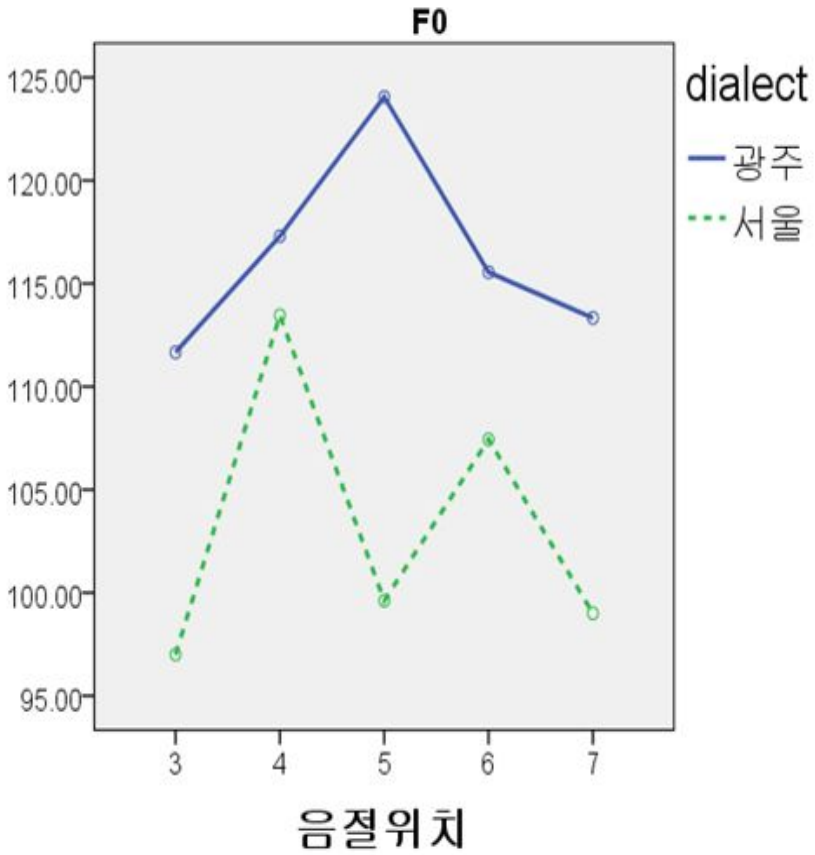
앞서 한국어로 된 두 가지 문장종류 평서문과 의문문에 나타나는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집단의 억양을 확인하였다. 한국어 억양 확인을 하기 위해 모든 문장의 모든 음절 즉, 문장 내의 모든 모음이 가진 소리의 높낮이 값을 *Praat*으로 추출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F0*값을 산출하여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영어 문장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처럼 문장 내 모든 모음의 소리높낮이 값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문장을 발췌하였던 Roach(2009) 중 chapter18과 chapter19의 "Functions of Intonation"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토대로 억양의 변화가 예상되는 강세 구를 먼저 특정지었다. 그 후 강세구내에서 가장 강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절인 강세음절(stressed syllable)을 숫자 "5"로 지정하고 강세음절을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음절을 "4", 뒤에 위치한 음절을 "6"으로 하여 모든 영어 읽기자료에 적용하였다. 또한 한국어 문장에서처럼 영어 문장에서도 문장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 나열문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 다수의 문장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평서문,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 영어 평서문 문장 강세 음절 주변

두 지역의 화자들에 의해 사용된 영어 읽기자료에서 평서문 문장은 *문장(15)*를 포함하여 총 15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래프4>는 앞서 보았던 한국어 평서문, 의문문 그래프와 같이 *x*축은 강세구내 음절위치를 나타내며, *y*축은 소리높낮이의 수치는 5Hz의 폭으로 하여 실선은 광주지역 억양, 점선은 서울지역 억양으로 나타냈다. 영어 평서문의 강세음절과 강세음절주변 음절의 통계 값에서 두 방언 간의 차이는 $F(1,193)=1.125$, $p=.290$으로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억양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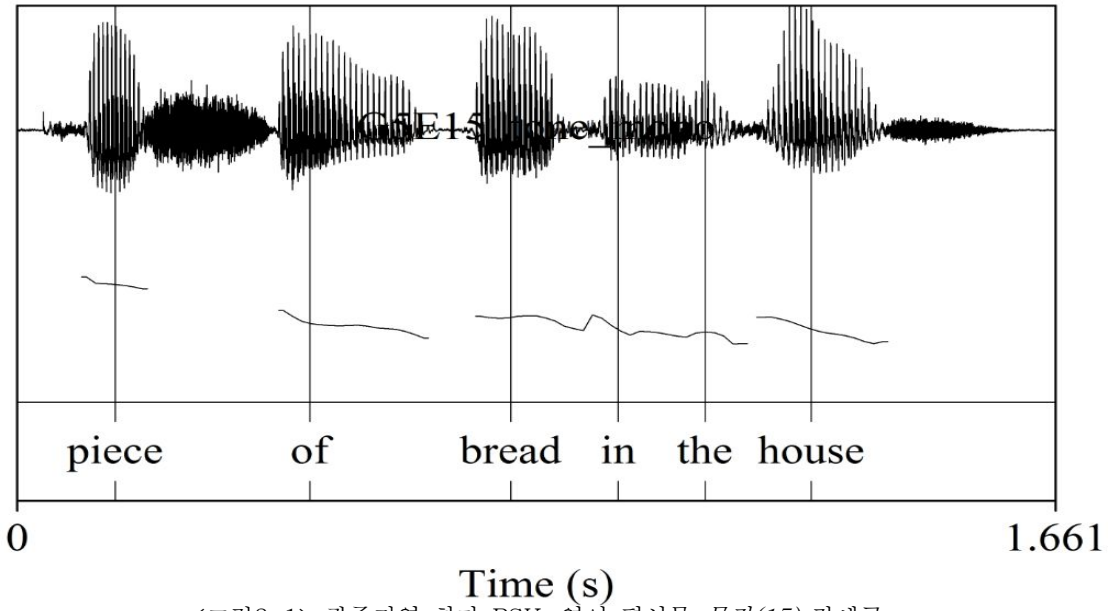


<그래프 4> 영어 평서문 문장 강세음절 주변 억양

<그래프4>에서 광주지역 억양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강세음절인 “5”음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강세음절을 기준으로 억양이 오르다가 떨어진다. 그러나 서울지역 억양을 보면 가장 강세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설정하였던 “5”음절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낮게 떨어져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반복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오류의 원인을 <그림4-2>를 통해 강세음절인 “5”음절에서 억양이 떨어진 원인을 하나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낮게 떨어진 강세음절을 오류라고 가정한다면,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들의 영어 평서문 억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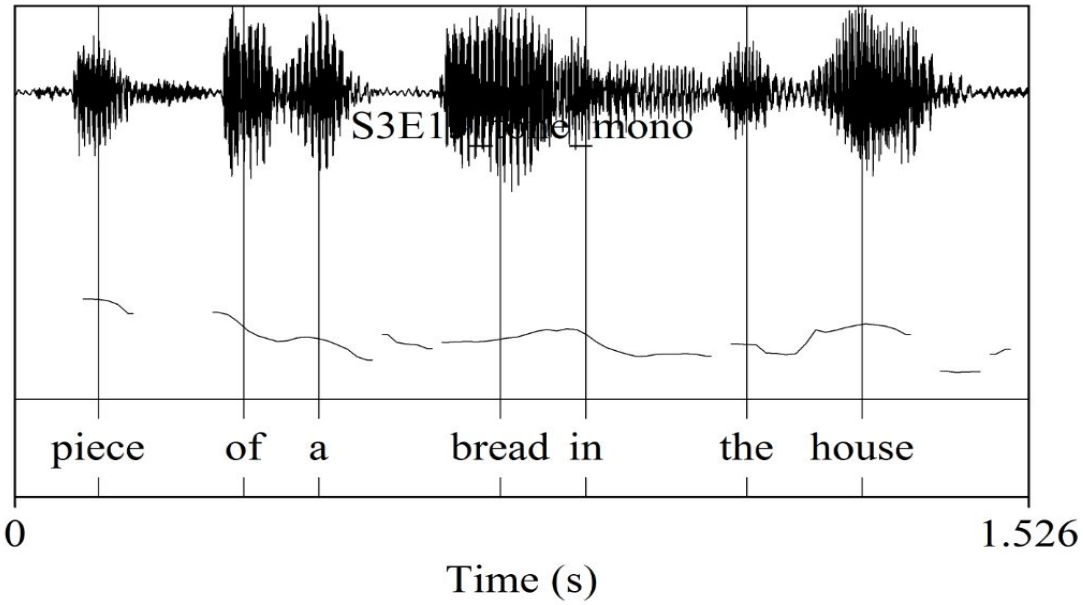
<그림3-1> 광주지역 화자 PSK, 영어 평서문 *문장(15)* 강세구

(15) There wan't even a piece (of ₩bread in) the house.

<그림3-1>은 평서문 *문장(15)*를 발화하여 얻은 광주 방언 화자의 파형 및 억양 곡선을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문장(15)*에서 *"bread"*를 강세음절로 하고 그 주변 *"of bread in"*을 강세구로 묶어 살펴보았다. 이 때 강세음절 *"bread"*이므로 "5"로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그래프4>를 보면 "4"음절인 *"of"*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림3-1>의 억양곡선 역시 <그래프4>와 같이 오르는 억양 곡선을 띄고 있으며, "5"음절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장 강세 받아 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뒤 "6"음절인 *"in"*에서 <그래프4>와 <그림3-1> 모두에서 떨어지는 억양이 나타났음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3-2> 서울지역 화자 HKS, 영어 평서문 *문장(15)* 문장 강세구

(15) There wan't even a piece (of ₩bread in) th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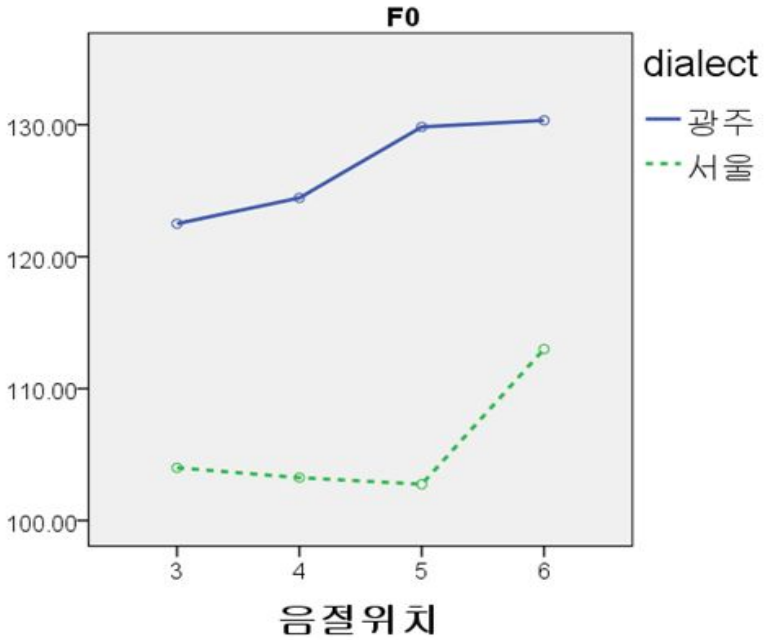
<그림3-2>는 <그림3-1>과 같은 영어 *문장(15)*, 평서문 문장이었으나, 화자가 발화 도중 강세 음절 *"bread"*앞에서 실수로 *"a"*를 추가하여 녹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세구의 음절이 3음절에서 4음절로 바뀌면서 문장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강세음절 또한 "a"로 바뀌었으므로 예상했던 강세음절과 달라져 발화된 것이다. <그래프4>에서 볼 수 있듯이 "4", "5", "6"음절에서 강세 음절인 "5" 즉, *"bread"*에서 떨어져 낮게 나타난 이유를 이처럼 발화에서 화자 임의로 추가 혹은 생략한 몇몇 예시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세음절 *"bread"*를 제외하고 강세음절 주변의 앞뒤 음절들에서는 평균 *F0*값을 이용하여 나타난 <그래프4>와 같이 *"of"*에서 떨어졌다가 *"a"*에서 오르며 *"bread"*에서 다시 올라 *"in"*에서 떨어지는 억양곡선을 확인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영어 yes-no의문문 문장 강세 음절 주변

영어 녹음 자료에서 yes-no의문문에 해당하는 *문장(03)*과 *문장(08)*을 포함하여 총 네 개 문장의 평균 *F0*값을 살펴보았다. Yes-no의문문의 소리높낮이 통계 값의 결과를 볼 때, 광주와 서울지역, 두 방언의 차이는 *p*값이 .005보다 작은 .001이므로 ($F(1,70)=36.008$, $p<.001$)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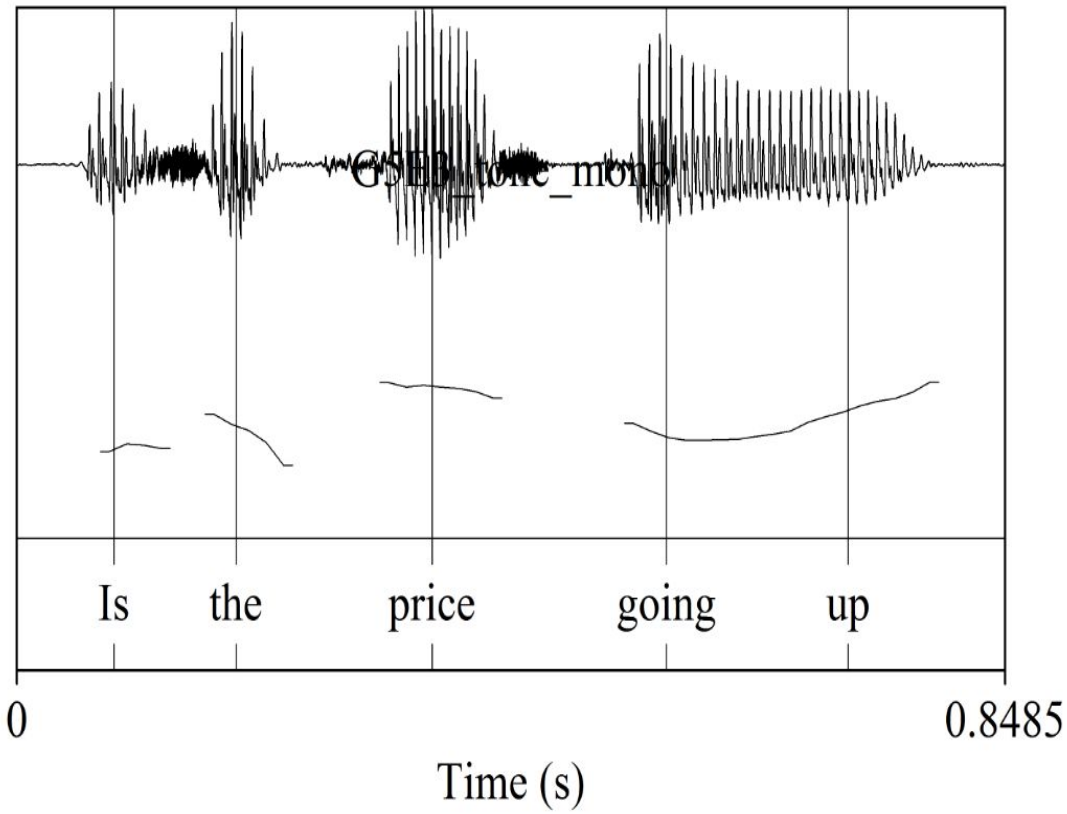


<그래프5> 영어 yes-no의문문 문장 강세 음절 주변

그러나 소리높낮이 평균값을 나타내는 <그래프5>의 억양을 살펴보면 실선으로 표시 된 광주지역 억양에서는 강세음절까지 다소 큰 폭으로 오름 억양을 보이는데, 점선으로 표시 된 서울지역 억양은 강세음절까지 내림 억양을 보인다.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들의 영어억양이 끝음절에서 오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강세음절을 기준으로 앞 음절들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억양의 차이는 두 지역의 모국어 지역 방언 억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광주와 서울지역 화자의 영어에 대한 능숙도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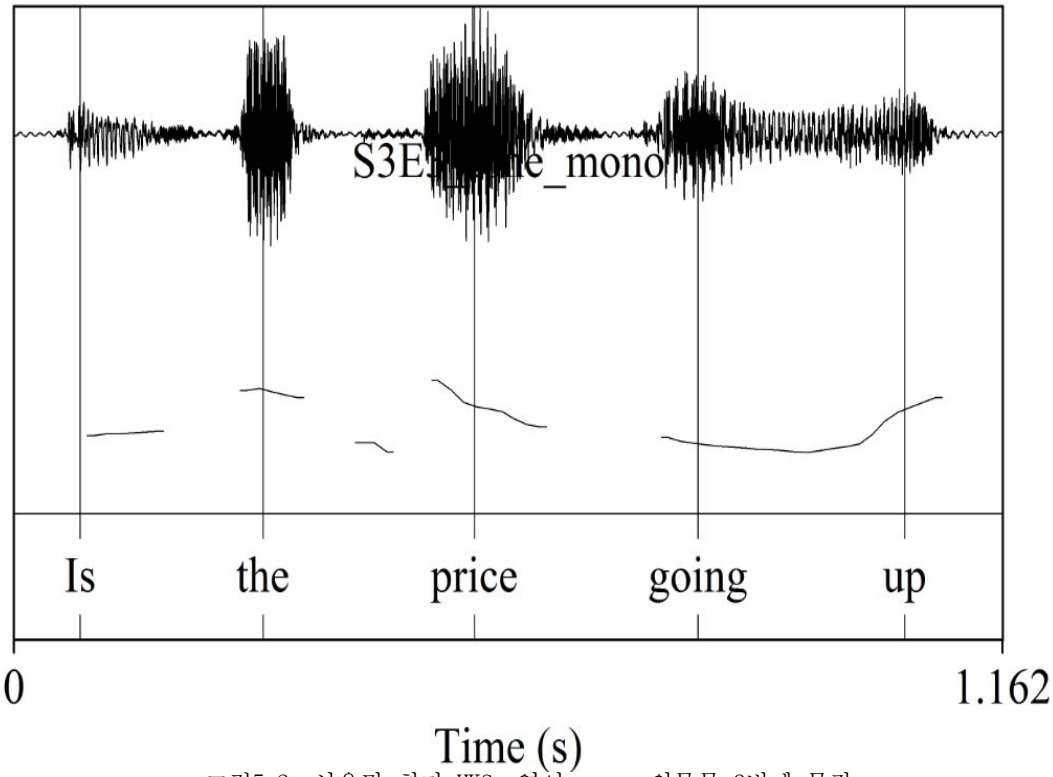
<그림5-1> 광주 방언 화자 PSK, 영어 yes-no의문문 *문장(03)*

(03) Is the price going up?

<그림5-1>은 광주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에 의해 발화 된 yes-no의문문의 파형과 억양 곡선을 *Praat*을 통해 추출해 온 것이다. *문장(03)*에서 문미에 위치한 강세 음절 *"going up"*에서 강세 음절 "up" 주변 "go"와 "ing"을 살펴보았다. "5"인 *"up"*이 <그래프5>에서 보았듯이 가장 강세 받아 높게 나타났으며, 강세 음절 *"up"*까지 "3"과 "4"인 *"go"*와 *"ing"*에서 상승하는 억양 곡선을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5-2> 서울말 화자 HKS, 영어 yes-no의문문 3번째 문장

(15) There wan’t even a piece (of ₩bread in) th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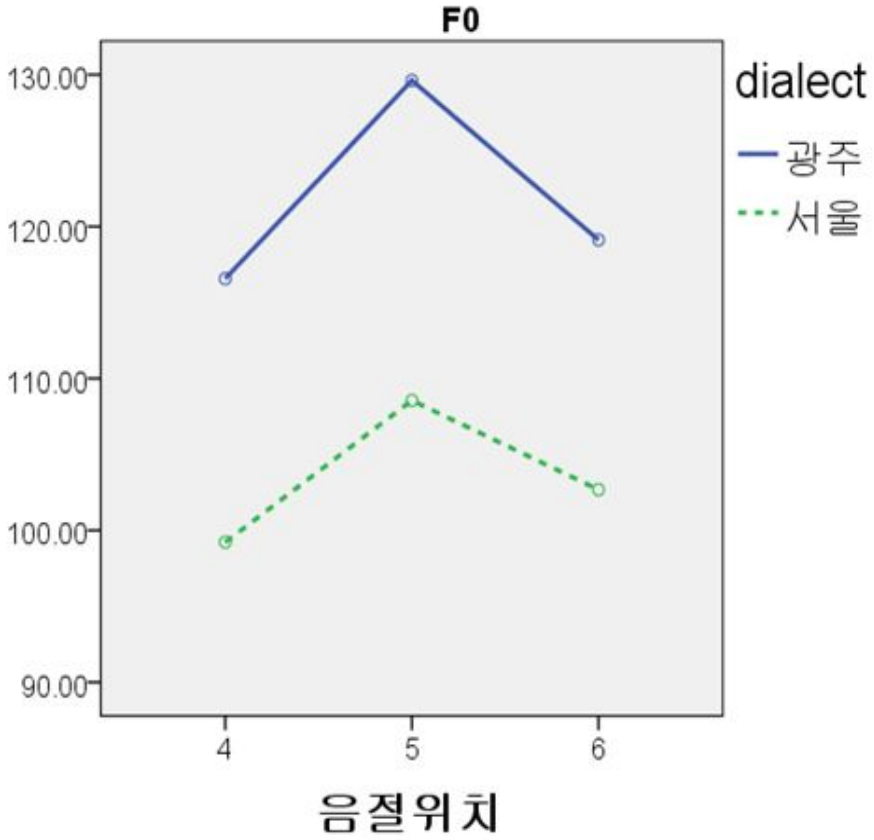
<그림5-2>는 <그림5-1>과 같이 yes-no의문문 중 하나로 서울지역 화자에 의해 발화되어 나타난 파형과 억양곡선 보여주고 있다. <그림5-2>에서 “3”, “4” 음절 *“go”*와 *“ing”*에서 떨어지다가 강세음절인 *“up”*에서 오르는 억양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5>에서도 떨어지는 “3” 음절과 “4” 음절을 볼 수 있고 “5” 음절에서 오르는 억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세음절 *“up”*에서 광주지역 억양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영어 의문사의문문 문장 강세 주변

녹음 자료로 사용한 스물아홉 개의 영어 문장 중 *문장(06)*과 *문장(13)*, *문장(16)*에 해당하는 의문사의문문(wh의문문)에서 억양의 변화가 강세음절 주변의 평균 *F0*값을 분석해보았다. 광주와 서울지역 두 방언 모두에서 강세음절인 “5”가 높게 측정되었다. 그 결과, 영어 의문사의문문의 강세 주변 소리높낮이의 평균 통계 값으로 볼 때, 두 방언 간의 차이는 *p*값이 .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것으로 ($F(1,42)=21.159$, $p<.001$) 나타났다.



<그래프6> 영어 의문사의문문 문장 강세 음절 주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래프6>에서 영어 의문사의문문 문장의 강세음절인 “5” 음절과 강세음절주변 모두에서 두 지역 간의 억양 차이는 찾아 볼 수 없다. 광주와 서울지역 모두에서 “5” 음절에서 가장 강세 받아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억양이 나타났으며, 주변음절에서도 올랐다가 떨어지는 억양의 오르내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어 의문사의문문 문장에서 두 지역 간의 억양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먼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광주지역 화자들의 한국어 발화에서 서울말과 차이가 있는 광주지역 특유의 억양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광주지역 억양이 영어발화에서도 그대로 얹혀 나타는가를 확인할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는 광주와 서울지역 토박이 화자들로 하여금 발화 된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녹음자료를 녹음하여 피 실험자들의 발화 음절마다 나타나는 소리높낮이 값을 음성분석용 *Pra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그에 따른 억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녹음자료로 쓰인 한국어와 영어 스물아홉 문장을 문장의 종류에 따라 평서문,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으로 크게 나누어 소리높낮이 값의 평균을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Software*를 통해 산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뒤 비교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어 두 지역의 억양을 한국어의 경우 문두와 문미의 강세 구의 음절을 살펴보았고, 영어의 경우 문장 내의 억양 변화가 예상되는 강세구내의 강세음절과 강세음절 주변 앞뒤 음절들을 중심으로 확인해보았다.

한국어에는 서울말뿐만 아니라 고유의 억양을 가진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부산이나 대구를 포함하는 경상방언과 같은 타 지역 방언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광주지역 억양이 영어억양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특히 영어억양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국어 평서문의 문두와 어말 그리고 의문문 어말 발화에 나타난 억양에서는 두 지역 간의 억양에 분명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이가 드러났으나, 영어의 경우 세 가지 문장종류인 평서문과 yes-no의문문, 의문사의문문 모두에서 두 지역 화자들의 억양이 매우 유사한 억양 곡선을 그리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몇 가지 원인을 예상해보았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두 지역 화자들의 연령대를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날로 앞당겨지는 한국어 화자의 영어 학습으로 인해 20대로 구성된 화자들이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화자에 비해 이른 나이에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 억양의 패턴을 일찍 접해 언어와 함께 억양까지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들의 영어 학습에 사용되는 음성자료 등이 일괄적으로 미국영어의 표준 억양으로 제공되었으며, 그러한 음성자료를 통해 익힌 억양으로 발화하여 영어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도자의 억양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광주 방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높은 연령층의 남성 화자를 피 실험자로 한다면 또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의문사의문문 외 평서문과 같이 영어발화 억양에서 나타나는 두 지역 억양의 차이는 지역 방언의 억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표1>과 같이 개인이 가진 영어에 대한 능숙도의 차이에서 오는 영어억양의 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화자의 연령대를 포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두 지역 화자들의 발화에서 모든 음절의 소리높낮이를 측정하지 않고 문장의 앞, 뒤 혹은 강세구내의 음절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전반적인 두 지역의 억양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화자집단에 속한 화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연구를 위해 참여한 피 실험자의 인원에 대한 문제이다. 광주지역 세 명, 서울지역 세 명으로 총 여섯 명의 두 지역 화자 집단이 참여하였으나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화자의 음성 녹음이 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례에 거쳐 진행하였지만 분석에 쓰인 녹음은 두 번째 차시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문장 내에서 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일부 구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 문헌

고선비(2009), An Analysis of the English Intonation by Speakers of the Chonnam Dialect - 전남 화자의 영어 억양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희산(1998), 영어와 한국어 억양 대조 분석, 영어교육, 38, 47-63.

김대성(2001),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 화자의 영어 억양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말숙(1989), 억양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화(2007),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한 영어과 교육의 발전방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동기(1998),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체계 비교 연구. (A Contrastive Study on the Korean and English Intonational System.) 신라대학교 학술지 저널, Vol.46 No.- [1998] 279-301(23쪽).

마리나 야겔로, 강주헌 역(1994), 언어와 여성 - 여성의 조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 , 여성사.

박선영(2016), 중학생의 성별언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혜진(2014), 부산방언 화자와 서울말 화자의 영어 억양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윤식(2002), 남성과 여성의 언어행위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A Sociolinguistic Study of Male and Female Linguistic Behaviors,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저널.

이수진(2001), 서울 화자와 대구 화자의 영어 억양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향(1985), 한국어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 「말소리」, 9-10호, 1985.

이준비(1996), 영어 학습자를 위한 억양 문제. Vol.20 No.- [1996]. 학술저널.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Vol. 10 NO.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학술저널 15-25(11쪽).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_____(2002), 국어 억양의 상승과 하강 현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상범(1995), 「영어음성학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5.

Hall, R. A.(1972), Algar and Intonation of British English, in Dwight Bolinger (ed), Intonation : Selected Reading, Penguin Books

Halliday, M. A. K.(1978,7), A course in spoken English : Into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Jun, Sun-Ah(1989), The Accentual Pattern and Prosody of the Chonnam Dialect of Korean. In S. Kuno et al. (eds.) Papers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rvard Univ. Cambridge, Mass.

_____(1993), Prosodic Typology : The Phonology of Intonation and Phrasing, Oxford Linguistics. 9

Roach, Peter(2009),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 A practical course, Cambridge.

Collection @ chosun